

이란에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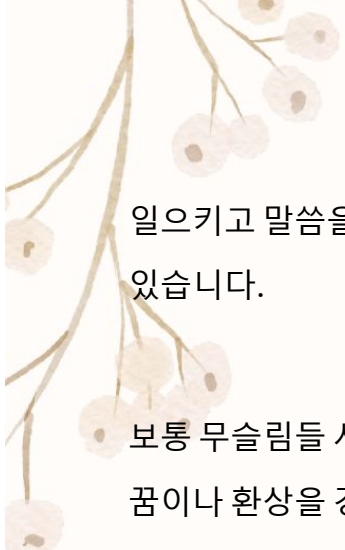
- 백운영 선교사

이란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은 단순한 종교적 증가 현상을 넘어섭니다. 오랫동안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증가는 매우 독특하며 극히 역설적인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강한 억압과 통제가 존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며 신앙이 깊어지고 확장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난 2 천년의 교회 역사속에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 모습입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호메이니 종교 지도자가 이끈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강력한 이슬람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개종은 금기시되며, 기독교 활동은 엄격한 감시를 받습니다. 이런 환경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쇠퇴를 예상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존재하던 교회가 환경적으로 더 강하게 신앙으로 무장되기 때문이며 그런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흡수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교회 부흥은 지하교회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건물이나 공개 예배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끈끈한 가정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가 모임을 가지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탄압을 피하면서도 관계 중심의 강한 공동체성을 만들어 냅니다.

많은 이란인들은 기존 종교 체제에 대한 실망과 이슬람 관습에서 벗어나기 원하면서 새로운 영적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삶의 의미, 자유, 사랑에 대한 갈망이 커지면서 기독교 메세지는 강한 영적 자극을 줍니다. 메마른 영혼에 강한 파도를



일으키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끌려서 새로운 메시지에 마음을 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통 무슬림들 사이에서 교회 부흥의 특징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현상이 예수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경험 했다는 간증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예배자들을 형성 시킵니다. 그들의 예배는 간절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는 진심이며 삶의 모든것을 그 말씀에 던져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위성방송, 인터넷, 눈을 통한 복음 전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콘텐츠 중에서 자신의 언어로 들리는 복음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디지털 복음 전파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신앙을 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지인을 통해서 어느 채널이, 어떤 콘텐츠가 가장 도움이 되고 어떤 메세지가 내 영혼에 신선하게 힘을 주는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세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억압이 반드시 복음의 확장을 막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진리 입니다. 오히려 본질적인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아닌 사람이 교회가 되어 관계와 삶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서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교회는 프로그램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의 성령 체험과 그로인한 변화가 핵심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